

히틀러의 파시즘과 본회퍼의 저항*

고재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I. 서론
- II. 독일 파시즘의 등장과 배경
- III. 히틀러의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 1. 민족공동체
 - 2. 인종주의
 - 3. 지도자 원리
 - 4. 생활공간이론
- IV. 히틀러의 파시즘과 “독일 그리스도인들”
- V. 히틀러의 파시즘과 본회퍼의 저항
 - 1. 지도자 강연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
 - 2. 획일적인 집단주의에 대한 비판
 - 3. 히틀러의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
 - 4. 나치의 역사관과 직접성에 대한 비판
 - 5. 슈미트의 예외상태에 대한 비판
- VI. 결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2.01>

* 이 논문은 2025년 장로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직제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2025.05.29.)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ABSTRACT •

Hitler's Fascism and Bonhoeffer's Resistance

Prof., Ko, Jye Gi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On December 3, 2024, the president declared martial law. The invasion of the We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by far-right Protestants was an extreme action. Fascism seems to be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 behind the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and the actions displayed by extreme right-wing Protestantism. Hitler's fascism arose from Germany's defeat in World War I and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German Protestantism participated in a historical crime that granted theological justification to Nazi ideology. German Protestants followed Hitler as the political messiah sent by God for Germany. However, Bonhoeffer criticized Hitler's concept of leadership, Nazi collectivism, racism, and Karl Schmitt's political theology. Far-right Christianity in Korea does not respect the values of diversity and community, is trapped in far-right ideology, and discriminates against people of certain other religions and certain countries in an exclusive manner. Korean far-right Christianity must correctly understand Bonhoeffer and must be reborn as a community of hospitality and salvation by restoring the communal aspect of the 'Church for the Other' that Bonhoeffer emphasized.

Key words: Hitler, Fascism, Bonhoeffer, Resistance, Responsibility, Church

I. 서론

최근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미나가 있다. 파시즘과 극우 기독교에 대한 연구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한국기독교윤리학회는 정기학술대회(2025년 4월 26일)를 개최했는데 그 주제가 “광장으로 나온 개신교: 개신교 신앙의 스펙트럼과 정치주체화의 지형도”였다. 여기에서 발표된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1) 극우 파시즘의 유령이 한국 개신교회를 배회하고 있다. 2)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 지양을 위한 개신교의 역할 연구: 내셔널리즘에 대한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의 그리스도교 윤리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3) 혐오는 어떻게 몸을 이루는가: 집단 혐오에 관한 신경인문학적 이해와 체화된 사랑으로서 성육신에 관한 고찰 4) 폭력과 권력: 계엄 이후 한국개신교 보수주의의 극우화 현상을 중심으로 4) 광장의 우울한 분노: 2030 극우 남성의 마음과 청년 예수의 정의 6) 인종주의 사회에 맞선 기독교현실참여주의 제언

그리고 2025년 5월 19일에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문화선교연구원 및 한반도평화연구원 이 공동포럼을 열었다. 주제는 “한국 개신교의 정치문화, 지형 조사 발표와 함의”였다. 거기에서 발표자들은 다음의 주제를 가지고 나왔다: 1) 조사 결과 발표: 개신교인 정치문화 형성과 지형 2) 한국 개신교는 극우인가? 그 현상과 과제 2) 한국 개신교는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된 섬인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신학교 학생들의 고민과 관심을 담아서 준비된 모임도 있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사회선교 동아리가 기획한 특강이었다. 세 명의 발표자들은 한국교회사, 종교사회학,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차례대로 각각 다음의 주제 - 1) 한국의 ‘보수’와 기독교: 유래와 흐름을 중심으로 2) 근본주의 현상과 기독교 3) 대선 이후, 기독교의 공론장 참여 어떻게 해야 하나? - 를 다루었다. 위에서 언급한 학술 주제는 개신교 단체와 개신교 신학교를 넘어서 주목을 받았다. 한국종교사학회

는 지난 5월 24일에 월례포럼을 가졌는데 서울과학기술대의 서교인문사회연구소의 김현준 박사가 발표했다. 발표는 “극우(종교)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한국 ‘극우 개신교’와 ‘기독교 내셔널리즘’의 성격 논의”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기관들과 학자들이 거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단기간 안에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다. 그 이유는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령 선포와 무장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국회 진입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극우 개신교인들이 광장에서 보여준 집회와 서부지검 난입사태와 무관하지 않았던 그들의 극단적인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아래의 글에서 “히틀러의 파시즘과 본회퍼의 저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극우 개신교의 동인으로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파시즘의 실체가 다루어진다. 히틀러의 파시즘에는 종교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 있고, 독일 개신교는 나치 이데올로기에 신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사적 범죄에 적극 참여했다. 본 연구가 한국개신교의 극우적인 형태를 바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II. 독일 파시즘의 등장과 배경

독일 파시즘(Fascism)은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모두 그 당시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와 불안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 파시즘은 파시즘의 진행과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탈리아의 권력자인 무솔리니(B. Mussolini)는 당을 창당한 약 3년 후에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무솔리니는 자신의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기까지는 6년을 보

내야 했다. 그러나 히틀러(A. Hitler)는 달랐다.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 노동당(NSDAP)을 만든 이후, 13년을 더 보내고 마침내 독일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었다. 놀랍게도 히틀러는 권력을 장악한 이후 자신의 정치적 적들을 모두 제거했는데 그 시간은 6개월도 걸리지 않았다.¹⁾

그러면 독일에서 파시즘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히틀러의 파시즘이 나타난 역사적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히틀러의 등장을 가져온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참패했고, ‘베르사유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과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²⁾ 패전의 후유증은 독일 영토의 상실을 가져왔고 그 결과, 대규모의 실항민들이 생겨났고 전쟁 마지막 해는 천만 명의 군인들이 사회로 유입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은 이전보다 고조되었다. 사회적 소외감으로 삶의 곤경에 이른 이들은 강력한 국가체제를 원했다. 이들의 소원을 더 증폭시킨 것은 전쟁 후유증이 초래한 경제적 위기였다. 전쟁 마지막 해의 산업 생산력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연도의 4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화폐가치는 상실되었고 식료품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가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심각했다.³⁾

둘째, 전 세계의 경제공황이 독일의 실업자들을 증가시켰다.⁴⁾ 패전 이후에 나타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차관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다. 그러나 1931/32년에 전 세계로 확대된

1) 김수용·고규진·최문규·조경식, 『유럽의 파시즘: 이데올로기와 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20.

2) 이 협정을 체결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반공화적 세력들에 의해서 “11월의 범죄자들”로 낙인을 찍혔고 비판받았다. 위의 책, 20-21.

3) 위의 책.

4) 1929년에 발생한 세계경제공황은 극심한 타격을 받았는데 경제공황이 시작된 이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무려 6백만 명의 실업자들이 생겨났다. 박한규, “열광의 정치: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 『대한정치학보』 15/3(2008), 15.

경제공황은 독일의 기존의 허약한 경제기초까지 무너뜨렸다. 대량의 부도 사태가 일어났고 지불 능력을 상실한 은행들이 나타났다. 실업률은 1932년 2월 기준으로 35%였는데 사회적 경제적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히틀러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배후에 유대인이 있다는 악의적인 선전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유대인을 차별하는 나치의 인종주의 정책을 실행하는 근거가 되었고 이 정책은 독일 국민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⁵⁾

셋째,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한 공화국이였다. 자력으로는 공화국의 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할 수 없었다. 1923년부터 1930년까지 내각은 총 7번 개편되었고, 연립정당 간의 이해 충돌은 그 당시의 정치적 불안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였다. 공화국의 중심 세력으로서 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한 개혁 노선을 표방한 “다수사회민주주의자들”과 중도적인 시민들을 겁박함으로써 공화주의 노선을 멀리하게 만든 혁명적 노선의 “독립사회민주당”은 서로 갈등하고 싸웠다. 이와 더불어서 군소정당들이 난립했는데 이는 모두 더 강력한 정치세력을 요구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히틀러의 나치(Nazi)는 다르게 움직였다. 나치당은 한 사람의 지도를 받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지도자의 의지와 결단은 단호했고 독일 국민은 히틀러의 등장에 환호했다. 이러한 국민적 인기는 선거로 바로 나타났다. 1928년 5월 20일의 제국의회 선거에서 나치당은 겨우 2.6%의 지지율로 12개 의석을 차지했다. 그런데 2년 후, 선거에서는 18.3%의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107개의 의석을 얻음으로써 제1당인 사회민주당의 다음을 잇는 제2당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치당은 1932년 7월 31일의 총선에서 230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이것은

5) 김수용·고규진·최문규·조경식, 『유럽의 파시즘: 이데올로기와 문화』, 21.

곧 히틀러의 나치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상황 앞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⁶⁾

III. 히틀러의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1. 민족공동체

바이마르 공화국은 전쟁 이전의 독일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발전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국민의회는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하였다(1919년 8월 11일). 이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여성도 바이마르 헌법안에서는 투표할 수 있었고 법적인 관점에서 남녀 평등을 보장하면서 의무교육과 사회보장도 제도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위기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을 앞당겼고, 히틀러는 그 혼돈의 상황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독일 대중의 인기를 받으며 급성장했다. 1930년 이후 히틀러는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독일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데 성공했다.⁷⁾

“나치당은 자신을 젊고 모든 계급을 포괄하는 ‘민족당’으로 자처하고 나서면서 개별적인 이해가 아니라 ‘민족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독일 전 사회계층 속으로 파고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독일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한 히틀러는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을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약속으로 묶어줄 수 있었다.”⁸⁾

6) 위의 책, 21-27.

7) 박한규, “열광의 정치: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 134-135.

8) 위의 글, 135.

히틀러는 ‘민족공동체’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그는 특별히 무너진 중산층과 좌절감에 빠진 일반 대중들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약속했다. 대기업과 공산주의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나치의 약속은 무산계급으로 전락할 위기 앞에서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중산층과 서민층을 안정시켰다. 히틀러의 파시즘은 특별히 현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 - 군인들, 청년들, 노숙자, 범죄자, 지식인, 농민 - 의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1932년에 “매우 강력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히틀러는 1933년 1월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⁹⁾ 그리고 1933년 12월 1일은 독일 파시즘의 역사적인 날이었다. 나치당은 “당과 국가의 통일 확보를 위한 법을 제정하여 지도자 국가(Führerstaat)를 완성시켰”고 “히틀러는 11월 12일의 국민투표에서 95%의 높은 지지를 받아 총통(수상)이 되었다.”¹⁰⁾ 히틀러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공동체의 개념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도자’로 통합되었다. 이것은 독일 파시즘으로 하여금 ‘우월한’ 독일 국가와 독일 민족 그리고 인종을 강조하도록 만들었다.

2. 인종주의

민족공동체의 개념이 순혈주의를 토대로 한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로 이어진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독일 민족은 우수한 종족인 게르만 민족이므로 열등한 다른 인종과 민족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¹¹⁾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가장 열등하고 해악

9) 위의 글.

10) 박한규, “열광의 정치: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 136.

11) “인종이론은 독일 파시즘의 이론적 축이다.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에서 경제계획은 오로지 게르만 인종을 유전학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민족사회주의자들의 견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수한 인종의 몰락을 의미하는 인종혼합으로

적인 인종인 유대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그 이유는 우수한 독일 민족이 열등한 민족의 해악성에 감염되는 위험을 예방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 인종주의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들, 쌍둥이들, 성소수자들, 노동 무능력자들은 모두 독일 민족공동체 안에서 배제되었다.¹²⁾ 흥미롭게도 독일 민족주의는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민족공동체는 단순한 혈연 중심의 공동체를 넘어서는 개념이었고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개념이었다. 나인호와 박진우는 이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나치즘의 정치종교는 무엇보다 새로운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 라는 전체주의적 유토피아를 절대화시켰다. 인종종교(ethno-religion)”라고 불리는 새로운 신앙은 나치즘의 정치종교에 응집성을 부여하는 통합요소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신앙을 통해 나치는 유전학, 우생학과 같은 근대 과학의 언어들을 동원하여 기존의 민족주의를 독일 민족의 인종적 우월성에 대한 신앙고백의 차원으로 심화시키려 했고, 기존의 반유대주의를 인종투쟁의 원리에 입각한 신화적 역사관 속에 통합시키려 하였다.”¹³⁾

3. 지도자 원리

히틀러의 파시즘이 독일 민족의 신성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

부터 게르만 인종을 보호하려는 수단이기도 했다.” 빌헬름 라이히, 황선길 옮김, 『파시즘의 대중심리』 (서울: 그린비, 2009), 123.

12) 박한규, “열광의 정치: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 170.

13) H. Schöps, eds., *Der Nationalismus als politische Religion* (Mainw: Philo Verlag, 1997), 168-185. 나인호·박진우, “독재와 정치종교: 독일 나치즘과 일본 파시즘의 상징의 정치,” 『대구사학』, 5.

처럼 히틀러는 자기의 정치적 권위를 신성한 것으로 만들었다. 즉, 히틀러의 권위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지도자 원리(Führerprinzip)”는 히틀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지도자 원리에 의하면 지도자의 권위는 계급이나 또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기의 영역에서 절대불변의 권위를 가진다. 따라서 피지배자들에게는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요구되며, 지도자들은 자기보다 높은 지위의 지도자들에만 응답하면 된다고 한다. 독일의 최고 지도자인 히틀러는 권력과 권위의 화신으로 태어났다. 그 이유 때문에 히틀러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법”이며 그 어떤 사람도 히틀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 원리는 “가장 우월하고 최고의 두뇌를 가진 한 명의 지도자가 독일 사회를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고”, 그리고 “독일 국민은 이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여 확실적인 전체주의적 정치질서를 정립하길 원했다.”¹⁴⁾ 이러한 지도자 원리 또한 종교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히틀러의 신성화 작업과 바로 연결된다. 나치의 지도자는 독일 민족이란 개념과 함께 절대적인 가치와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¹⁵⁾

“독일의 국가(Reich)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과 동일시되었으며, ‘하나의 제국’, ‘하나 민족’, ‘한 지도자’는 세속화된 삼위일체로서 신성시되었다. 지도자 히틀러는 ‘치유자 내지 구세주 Heiland)로서 표현되었으며, 정치 의례에 있어서 히틀러에 대한 기도문은 주기도문을 모방하여 작성되었다.”¹⁶⁾

나치즘의 혁명적 민족주의 종교를 구성했던 이데올로기적 요소들 중

14) 박한규, “열광의 정치: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 137.

15) 나인호·박진우, “독재와 정치종교: 독일 나치즘과 일본 파시즘의 상칭의 정치,” 8.

16) 위의 글.

가장 효과적이었던 지도자원리는 전적으로 히틀러의 카리스마와 그의 개인적 지도력의 신화에 의존했다. ‘히틀러 신화’야말로 - 최근 몇몇 연구들이 지적하다시피 - 대중을 나치 지배체제에 동원하고 통합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력이었다. 평범한 독일인들은 나치 치하의 일상속에서 부딪쳐야 했던 긴장, 공포, 패배감의 보상을 다양한 내용으로 채색된 ‘히틀러 신화’ 속에서 찾았다. 심지어는 나치당과 정부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에게게서조차 히틀러의 카리스마적 지도력에 대한 신뢰는 강력했다. 요컨대 히틀러 신화는 일상에서의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체제 전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던 메커니즘이었던 것이다.”¹⁷⁾

민족주의와 지도자원리에 기초한 나치즘의 정치종교는 단순히 독일 대중들의 내면세계를 통제하는 강제적인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동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강력한 메커니즘이었다. 독일 나치즘은 국민 대중들을 ‘신자공동체’로 생각하면서 “민족국가를 가장 우월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절대적인 사명과 권위를 확립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전통적인 문화를 이용했다.” 민족국가와 지도자를 신성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이러한 종교문화를 통해 가능했고, 민족국가와 지도자의 신성화 과정은 “곧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서로 뒤섞이게 되는 과정”이었다. 나치는 민족공동체 이데올로기와 반유대주의를 표현하기 위해 기독교의 상징체계와 교회 및 신학의 개념들과 의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¹⁸⁾

17) 위의 글, 19.

18) 위의 글, 6

4. 생활공간이론

히틀러의 파시즘이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독일 영토 안에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었고 히틀러는 “생활공간(Lebensraum)”이란 개념을 가지고 독일 영토의 확장을 도모했다. 독일 내부에서는 유대인들을 척결하고, 독일 외부로는 타민족의 국가들을 침략했다. “생활공간”, 이 개념은 독일 민족의 우월성에 기초한 대외 팽창주의적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히틀러는 그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독일 민족이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더 많은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서는 열등한 동유럽의 여러 민족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노예들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 독일 민족을 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⁹⁾ 그러면 “생활공간” 개념이 가져온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한 주검들은 어디에서 그 한을 풀 수 있을까? 독일 파시즘이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은 약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히틀러의 명령은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만들었고, 1940년 7월 31일에는 소련에 대한 나치의 공격을 결정했고, 1941년 6월 22일에는 독일의 생활공간 안에 소련의 영토까지 포함시키려는 전쟁으로 확대되었다.²⁰⁾

IV. 히틀러의 파시즘과 “독일 그리스도인들”

히틀러의 파시즘의 영향 아래에서 독일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히틀러의 등장과 파시즘이 지향했던 새로운 유토피아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그들은 모두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무너졌던 독일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독일 국가의 화려한 부활을 가능하게 할 신적

19) 박한규, “열광의 정치: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 137-138.

20) 김기홍,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기독교회의 태도,” 『신앙과 학문』 25/2(2020) 156,

인 존재,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를 추종했기 때문이다. “독일 그리스도인들(Deutsche Christen)”이라고 부르는 독일 교회 연맹은 히틀러의 과시즘을 신학적 차원에서 정당화했다. 독일 교회와 독일 민족주의의 결합이 만들어 낸 치명적인 잔인함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서양사를 전공한 이병철은 독일 개신교가 민족주의적 특성과 민족적이고 보수적인 특성 및 인종주의적 특성을 가진 여러 그룹들이 1932년 여름에 “독일 그리스도인들 신앙운동”으로 결집되었던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나치의 이데올로기와 목표를 의도적으로 강령 안으로 편입시켰고, 민족과 인종을 창조질서의 중요한 요소로서 생각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한 법으로 선포했다.²¹⁾ 이 운동이 결의하고 실행한 것은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그 강령에서 독일기독교도는 29개로 구성된 지방교회를 해체하고 지도자 원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조직된 ‘제국교회’를 수립하고자 하였고, 유대인 기독교도의 배제, 구약성경으로부터의 전환과 신약성경의 축소와 재해석을 통한 ‘탈유대화’, ‘무익한 자’, ‘열등한 자에 대한 방어’를 통한 ‘게르만 인종의 정화’, ‘민족 적대적인 마르크시즘’의 멸절을 주장하였다.”²²⁾

그러면 독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히틀러와 나치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독일 개신교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국가란 존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창조질서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국가가 신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루터교 신학자인 히르쉬(E. Hirsch)는 질서의 신학을 독일 민족주의 다음과 같이 결합했다.

21) 이병철, “독일 제3제국과 기독교의 저항,” 『서양사연구』 37(2007), 137.

22) 위의 글.

“무엇을 발견했는가? 독일적 민족성과 개신교 신앙, 이 둘은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분리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 둘은 현재 상황 속에서도 운명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그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또한 역사의 주인께서 현재 민족에 붙어 닥치는 거룩한 사건의 폭풍 속에서 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가시다. 민족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²³⁾

히르쉬의 신학적 관점은 철저하게 독일적이고 민족적인 독일 개신교회의 목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들이 독일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고 독일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약속했던 히틀러를 환영했던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들에게 1933년 1월 30일 히틀러의 제국사상 임명은 신이 베르사유의 굴욕을 당한 독일에게 선 물로 준 민족의 구원이요 새 시대의 도래와 같았다. 교회의 축제와 감사예배가 이 ‘운명의 해’를 장식하였다. 많은 교회에서 ‘독일의 희망의 상징’으로서 제단 주위에 나치의 깃발이 게양되었다.”²⁴⁾

이와 같은 현상은 독일 개신교 목사의 설교와 강연을 통해 계속 나타났다. 1932년에 2월에는 나치의 이념을 추종했던 목회자들의 대집회가 있었고 그해 5월에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란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 집회에서 호센펠드(S. Hossenfelder) 목사는 “(독일 게르만) 종에 적합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고백을 주문했고, 쿨네트(W. Küneeth) 목사는 젊은

23) Emanuel Hirsch, *Deutsches Volkstum und Evangelischer Glaube* (Hamburg: Hansatische Verlagsanstalt, 1934), 39. 추태화, 『권력과 신앙: 히틀러 정권과 기독교』 (서울: 씨코북스, 2012), 105.

24) 이병철, “독일 제3제국과 기독교의 저항,” 53.

신학자의 입장에서 나치의 이데올로기는 “독일의 긴급 상황에서 나온 민족의 운동이고, 제 3제국을 위한 투쟁은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독일의 사명이다. 그래서 신학적 사고로 볼 때 히틀러와 나치의 등장은 하나님의 섭리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²⁵⁾ 베를린에서 목회를 했던 노빌링(S. Nobiling) 목사는 1934년 4월에 열린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서 나치의 지도자 원리를 교회 안에서 적용할 것을 말하면서 “순수 독일 혈통”의 사람만 독일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교회와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회는 라디오 방송으로 생중계된 개막 연설에서 쿠베(W. Kube)의 견해를 따라서 히틀러의 나치를 “루터가 바라던 독일 혁명의 선구자”로 말했다. 히틀러는 독일 제국교회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이것의 전권을 뮐러(L. Müller) 목사에게 맡겼다. 뮐러는 이에 대해 같은 해 5월 20일에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뮐러는 히틀러가 독일 제3제국의 수상이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찬양했다. 그는 나치 돌격대가 가지고 있었던 “나치 돌격대-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음으로써 반나치 세력에 대한 무력적인 개입을 적극 시도했다. “나치 돌격대-예수 그리스도”는 나치의 준군사조직이었고 나치 돌격대 안에서 특별히 “기독교 인사들이 나치 세력으로 조직하는 일”을 담당했다.²⁶⁾

히틀러를 추종했던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신화적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었다. 그 신화란 다름 아닌 “제국의 신화”이다. 그 신화는 중세의 과거로 소급되는 신화인데 이것은 독일의 역사와 서유럽의 역사를 구별하는 분기점이다. 그 신화에 의하면 고대의 로마제국의 통치는 신성로마제국을 통해서 이어졌고 그 역사는 오늘의 독일 국가와 민족을 통해

25) 장수한,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6), 277-278.

26) 위의 책, 279-280.

계승된다. 신성로마제국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세의 역사가 사라진 후에는 이 사명이 독일에게 이양된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히틀러가 세운 제 3제국 안에서 그 신화가 성취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는 사실이다.²⁷⁾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을 이끌었던 크라우제(R. Krause)가 1933년 11월 13일에 베를린에서 했던 연설은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천년의 독일 역사가 달성할 수 없었던 것과 비스마르크가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지도자인 히틀러의 강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한 것이다...(중략)... 만약 통치에 관하여 말하면 오직 한 가지뿐인 힘만 필요하다. 즉 히틀러와 그의 보좌관들의 권위이다.”²⁸⁾

V. 히틀러의 파시즘과 본회퍼의 저항

파시즘의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박성철은 파시즘과 특히 종교(기독교) 파시즘에 대해 연구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파시즘은 수직적인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에 기초한 국수주의(Ultra-nationalism)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totalitarian dictatorship)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파시즘은 “집단의 전체를 신성시하여 개인보다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고 여기서 집단은 “국가 혹은 민족으로 대표되며 동시에 신성화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수직적인 국수주의에 기초한 파시즘은 자연스럽게 전체주의적인 독재의 체제를 만들어 낸다. 파시즘은 오직 한 명의 독재자가 권력을 독점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영역에 대한 절대

27) 위의 책, 276.

28) R. Schwarz, *Martin Luther. Lehrer der Christen Religion*, (Tübingen: Mohr Siebeck, 2015), 73. 김기홍,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기독교회의 태도,” 159.

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병적으로 집착한다.²⁹⁾ 파시즘의 특징은 히틀러가 추구한 파시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히틀러는 수직적인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통해 독일 국민과 독일 개신교를 통제하고 그들을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러면 신학자이자 동시에 목사였던 본회퍼(D. Bonhoeffer)는 히틀러의 파시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본회퍼는 독일제국교회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했던 “독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독일고백교회의 일원이었던 본회퍼는 수직적인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에 대해 어떻게 저항했을까?

1. 지도자 강연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

본회퍼는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의 며칠 동안 자신이 세운 계획의 일정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는 대학교에서 정규 강의를 했고 성서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베를린의 방송시간”에서 인상적인 제목의 강연을 했다. 나치의 입장에서 볼 때, 미리 차단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그 강연의 제목은 “젊은 세대 안에서 일어난 지도자 개념의 변화”였다. 히틀러가 수상직에 오르기 전에 준비했던 본회퍼의 이 강연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널리 전파되었다. 본회퍼는 지도자 개념의 발생의 원인과 전쟁 이후의 시대를 사는 청년 운동에서 발생한 지도자 개념의 변화를 분석했다. 본회퍼의 친구이자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의 저항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베틀게(E. Bethge)에 의하면 본회퍼는 그 당시의 지도자 숭배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했다. 본회퍼의 강연은 나치의 당황함을 이끌어냈고, 그의 연설은 즉각 중단되었다. 본회퍼는 지도자 개념이 최근에 발전한 원인을 역사적인 필연성과 심리적인 필연성

29) 박성철, “한국 교회 내 기독교파시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2020), 306-307.

에서 찾았다. 그는 지도자 개념의 권위를 논증해야 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³⁰⁾

“지도자가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이 그에게서 우상을 기대한다면, 그 지도상은 조만간 악마의 상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을 우상화하는 지도자와 직책은 하나님을 조롱하게 마련입니다.”³¹⁾

위의 마지막 문장이 전파를 타기 직전에 마이크가 꺼졌다.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강제로 중단되었을 때, 본회퍼는 분노했다고 한다.³²⁾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수상직에 오른 이틀 후에 전파되었던 이 라디오 강연은 나치의 지도자 원리에 대한 본회퍼의 예언자적 비판이었다.

2. 획일적인 집단주의에 대한 비판

본회퍼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교회공동체의 정체성과 그것의 기본 구조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조직신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교회를 분석하기 전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공동체를 살펴보았다. 신학자, 바르트(K. Barth)가 “신학적인 기적”의 작품이라고 극찬했던 본회퍼의 학위논문의 제목은 『성도의 교제』³³⁾였는데 이것은 긴 부제 - 교회사회학에 대한 교의학적 연구 -를 가지고 있었다. 본회퍼는 이 책에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파악했다. 본회퍼는 이러한 인간을 사회적 기본관계, 사회성의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고 이해했다. 인격은 개인의 성품이

30) 베트게, 『디트리히 본회퍼: 신학자-그리스도인-시대인』, (서울: 복있는사람, 2014),

31) 위의 책, 407.

32) 위의 책.

33) Dietrich Bonhoeffer,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hg. v. J. Soosten, DBW 1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6)

아니라 사회성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개인은 오직 ‘타자’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개인은 ‘단독자’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타자’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타자’란 무엇인가? 만약 내가 개인을 구체적인 나라고 부른다면, 타자는 구체적인 너다.”³⁴⁾

여기에는 독일 관념론이 강조하고 있는 주체 중심의 철학과 주객도식의 관계에 대한 본회퍼의 비판이 엿보인다. 놀랍게도 본회퍼는 개별 인격(개인)의 개념을 공동체의 개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회퍼는 공동체에 대한 성서적인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지하도록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개별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의 역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을 삼켜버리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고 인간들의 공동체를 원하신다. 그가 보기에 공동체와 개인은 같은 순간 속에 있으며 서로를 포함한다. 집합적 통일체와 개별적 통일체의 구조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종류의 것이다. 종교적 공동체와 교회 개념은 바로 이러한 기본관계에 근거하고 있다.”³⁵⁾

하나님이 기획한 공동체는 개인의 존엄성과 고유한 개성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이 서로 인격이 되고 “나와 너의 관계”의 현실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신다. 놀랍게도 본회퍼는 개인과 공동체 간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공동체는 단순한 개인들의 총합이 아니며 공동체는 자기에게 속한 개인들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

34) 위의 책, 22.

35) 위의 책, 53.

는다. 여기에서 공동체는 개인들과 만나는 “개별적인 집단인격”이 된다. 본회퍼에 의하면 공동체는 한 명의 개인처럼 생각하고 결단하는 “윤리적인 집단인격”이다. 집단인격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는 자기와 다른 공동체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정한 한 공동체와 또 다른 한 공동체는 사회성의 현실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³⁶⁾

본회퍼는 개인과 공동체를 사회적 관계성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히틀러의 파시즘에 나타나는 획일적인 집단주의와 경직된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1927년에 출간된 본회퍼의 박사학위논문이 비록 명시적으로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본회퍼의 관점은 나치의 이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 관점이 그의 후기 신학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독일 민족공동체는 유대 민족공동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것의 참혹한 결과는 놀랍게도 유대인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로 이어졌다. 이 비극을 초래한 나치의 극단적인 집단주의 사상은 공동체에 대한 본회퍼의 견해가 던지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히틀러의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

히틀러의 나치는 1933년 4월에 그 유명한 아리안(Arian) 조항을 만들어서 공포했다. 이것은 독일의 공직에서 독일의 순수한 혈통이 아닌 비아리안인들을 쫓아내는 법이다. 이 법 조항의 최종적인 목표는 오직 유대인에

36) 위의 책, 74-76. 이러한 공동체는 윤리적인 주체로서 행동하지만 그 행동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개인을 통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흑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마틴 루터(Martin Luther) 목사는 흑인 공동체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백인 공동체를 철저히 비판했다. 인도의 민중들을 대리했던 간디(Mahatma Gandhi)는 그들의 주권을 빼앗았던 영국 공동체에 대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대한 척결이었다. 본회퍼는 히틀러의 반인권적인 악법에 대항하여 1933년 여름에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특별한 글 - “유대인 문제에 직면한 교회” - 을 발표했다. 그해 9월에 니뮐러(M. Nimöller) 목사가 주도하여 만든 목사긴급동맹은 히틀러의 인종주의를 비판했다. 그런데 본회퍼의 이 발표는 목사긴급동맹의 비판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나온 것이다. 본회퍼는 여기에서 국가의 폭력이 법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교회가 국가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국가는 “자신의 행위를 합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는 이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국가는 자기의 행위가 “불공정하고 무질서한 행위가 아니라 공정하고 질서 있는 행위”라고 해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둘째, 교회공동체는 “모든 사회체제의 희생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도울 의무를 가지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교회의 도움과 그 의무의 범위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일반적인 사회의 영역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회퍼는 히틀러에 대한 저항의 표현을 강조한다. 교회는 폭력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다친 희생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야 하며, 동시에 교회는 폭력의 “수레바퀴 자체가 굴러가지 못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한다.³⁷⁾

한편, 독일 고백교회는 독일제국교회로 편입된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비기독교적인 행위를 비판했다. 참된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고백교회와 거짓된 메시아 히틀러를 추종하는 “독일제국교회” 사이의 투쟁은

37) Dietrich Bonhoeffer, *Berlin 1932 - 1933*, hg. v. C. Nicolaisen/ E. A. Scharffenorth, DBW 12, (Gütersloher: Chr. Kaiser Verlag, 1997), 349-358. 이에 대한 해석에서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Christof Gestrinch, *Christentum und Stellvertretung. Religions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zum Heilsverständnis und zur Grundlegung der Theologie* (Tübingen: Mohr Siebeck, 2001), 152. 자비네 드람 / 김홍진 옮김, 『본회퍼를 만나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286.

1934년 5월 31일에 선포된 “바르멘 신학선언”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리는 이른바 “교회투쟁”의 서막은 그와 같이 열린 것이다. 바르트의 특별한 기여를 통해 작성된 “바르멘 신학선언”은 6개의 테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선언은 그 당시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교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히틀러의 파시즘을 비판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선언은 더 직접적인 저항의 표현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³⁸⁾

유대인들은 나치의 인종주의 정책으로 인해 삶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것을 넘어서 참혹한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렸다. 히틀러의 파시즘은 1935년에 인종주의에 기초한 뉘른베르크법을 만들어서 유대인의 권리를 강제로 박탈했다. 히틀러는 “1938년 회당” 사건 이후, 유대인들의 가게와 민가를 파괴하거나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살해했다.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박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유대인에 대한 강제적인 추방과 대량학살로 이어졌다. 그 당시에 독일에 살았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약 12만 명이었는데 그들은 독일 개신교회로부터 도움과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다. 나치 정권은 1939년부터 유대인에 대한 안락사를 감행했다. 소위,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본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안락사의 중요한 대상이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전증 환자, 알콜중독자,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적인 불임수술이 1933년 7월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1940년에는 이러한 수많은 장애인들이 결국 독가스, 약물중독, 구타나 아사 등으로 참혹하게 살해되었다.”³⁹⁾

38) 이병철, “독일 제3제국과 기독교의 저항,” 145-146. 교회가 국가의 폭력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의 폭력행위를 가져오는 수레바퀴 그 자체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저항의 표현은 바르멘 신학선언에서 나오지 않는다. 본회퍼가 독일 교회의 구성원들이 아닌 다른 회생자들을 교회가 돌보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나치의 교회 정치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아리안 혈통의 독일 기독교인들만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교백교회의 온건 다수파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회퍼의 그의 책, 『윤리학』을 통해 “자연적인 생명의 권리”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신체적인 자유의 권리에 대해 강조한다. 본회퍼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자의적인 박탈의 행위는 “창조와 함께 주어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⁴⁰⁾ 본회퍼는 특히 신체에 대한 착취를 “인간의 신체적 능력이 다른 인간이나 제도의 무제한적인 소유물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에서 “나의 신체에 대한 침해는 나의 인격적 실존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행위는 “그의 신체적 생명과 분명한 거리를 유지라는 행위 속에서” 드러난다. 본회퍼에 의하면 이러한 자연적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 자신이 보장하는 것”이며 “선물로부터 과제가 나오듯이, 권리 자체로부터 의무가 나온다. 의무는 권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⁴¹⁾ 신체적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지켜야 한다고 강요받는 의무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생명의 안전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같이 본회퍼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자의적인 살인 행위”와 인간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우생학적 실험을 자행했던 나치의 인종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4. 나치의 역사관과 직접성에 대한 비판

본회퍼의 책, 『그리스도론』은 그가 베를린대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강의(1933년 1학기)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쓰인 책이다. 본회퍼에 의하면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구조”에 대한 신학이론이다. “그리스도의

39) 김기홍,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기독교회의 태도,” 169.

40) Dietrich Bonhoeffer, *Ethik*, hg. v. E. Bethge/ I. Tödt- E. Feil- C. Green, DBW 6 (Gütersloh, 1998), 212.

41) 위의 책, 179.

인격적 구조”란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관계성의 현실 안에서 인간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회퍼에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Pro-me) 그리스도를 말한다.⁴²⁾ 나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은 구체적인 세 가지의 영역 안에서 구성된다. 본회퍼는 이것을 “인간을 위한 현존재”, “역사를 위한 현존재”, “자연을 위한 현존재”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실존의 중심이자 중보자로 현존하며, 역사의 중심이자 동시에 중보자가 되고, 자연의 중심이자 중보자로 설명된다.⁴³⁾ 필자가 여기에서 특별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역사를 위해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자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본회퍼에 의하면 인간은 율법과 그것의 성취 사이에 존재하듯이 인간의 역사는 약속과 그것의 성취 사이에 존재한다.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다. 본회퍼가 생각하는 역사의 의미는 “메시아의 도래”를 말하는데 인간의 역사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과 그것의 성취를 기다리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간들의 역사는 거저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과 투쟁의 역사로 나타났다. 본회퍼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역사가 갈망했던 “메시아적 기대”를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역사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낮아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이 지점에서 “역사의 다른 모든 요청은 기각되고 심판받으며 파괴”된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자기의 한계성으로 인해 마침내는 “종말 앞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의 중심으로서 오류에 빠진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42) Dietrich Bonhoeffer, “Christologievorlesung,” *Berlin 1932-1933*, hg. v. C. Nicolaisen/E.A. Scharffenorth, DBW 12, Gütersloh 1977), 295-296.

43) 위의 글, 307-310.

중보자가 된다.⁴⁴⁾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보자로 이해했던 본회퍼가 독일 제 3제국의 부흥과 성공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본회퍼는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히틀러와 나치가 차별하고 억압했던 대상이었던 바로 그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에는 단순한 신학적 진술을 넘어서는 저항의 의미가 내포된 것이 아니었을까? 정치적 메시아로 추앙받아서 독일을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만들고자 했던 역사관은 참된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의 비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종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히틀러는 독일 대중들을 동원하고 선동하는 정책을 실행할 때, 다음의 단어들 - 독일, 가족, 민족(Volk) - 이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회퍼는 이것을 비판한다. 본회퍼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제자 공동체로 편입된 이후부터는 제자들은 “모든 직접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예수에 의해 중재된 간접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떤 개인과 가족공동체 및 국가도 그리스도를 통한 간접적인 관계성의 현실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⁴⁵⁾ 이러한 직접성(Unmittelbarkeit)에 대한 비판은 히틀러의 지도자 원리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 거짓된 정치적 메시아, 히틀러는 독일의 제3제국이 추구하는 역사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44) 위의 글., 308-309.

45) 강인일, “디트리히 본회퍼의 ‘직접성’과 ‘간접성’에 대한 이해: 『나를 따르라』와 『성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92(2024), 809-810.

5. 슈미트의 예외상태에 대한 비판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인 슈미트(Karl Schmitt)는 정치신학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결합시킨다. 그럼으로써 그는 주권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그의 확신에 따르면 주권은 “지배나 구속의 독점이 아니라 결정의 독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종의 독재와 같은 것인데 독재는 “결정하는 인격과 위엄, 가치의 대표자는 개념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⁴⁶⁾ 다시 말해서 주권의 본질적인 특성은 결정에 달려있고, 그 결정은 단순히 “제도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소유한 인격체, 정치적 대표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⁴⁷⁾ 중요한 것은 슈미트가 주권자의 중요한 결정을 “예외상태”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예외상태는 “원칙을 보장하고 원칙은 예외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슈미트의 견해를 따르면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질서, 안정적인 국가, 위기의 극복은 오직 예외상태를 결정짓는 주권자의 몫이다.⁴⁸⁾ 슈미트는 그의 인격적 주권의 개념과 예외상태의 개념을 가지고 그 당시의 규범과 보편주의에 맞선다. 이러한 슈미트의 견해는 그의 다음의 책 - 『독재』(1921), 『정치신학』(1922) 그리고 『정치적인 것의 개념』(1927) - 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⁴⁹⁾

결정은 모든 종류의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고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국가는 예외상태라는 조건 안에서 자기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에 기초하여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슈미트에게 “예외상태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 권한, 즉 모든 현행 질서를 효력 정지시키는 권한

46) 윤민재,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과 세속화, 그리고 그 비판: 정치신학비판을 통한 민주주의 위기 분석,” 『사회과학연구』 57(2018), 303-304.

47) 위의 글, 304.

48) 위의 글.

49) 김향, “적의소멸과 정치신학: 칼 슈미트의 카타곤과 메시아,” 186. 『인문논총』 72/4 (2015).

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법의 원칙은 후퇴하는 반면에 국가는 자기의 존립을 계속 유지한다. 예외상태는 “법규범의 유효성보다 국가의 실존”을 더 “우월한” 것으로 만든다.⁵⁰⁾ 주권자의 역할은 긴급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을 실행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고 한다.⁵¹⁾ 슈미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의 정치신학을 전개했다. 그의 눈에는 현대국가와 정치는 신학의 영역과 분리해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권자의 결단 의지와 예외상태에 대한 결정 안에서 찾았다. 즉 슈미트에게 주권자란 “합리적인 통치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성격을 갖는 최고의 주권자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⁵²⁾ 슈미트의 정치신학은 히틀러의 파시즘을 지지하는 학문적인 토대였다. 슈미트는 그의 해박한 신학적 지식과 법학의 연술로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했다.⁵³⁾ 슈미트는 히틀러의 등장을 주권 개념과 연결했고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정치적·사회적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는 주권자로 이해했다.⁵⁴⁾ 히틀러는 주권자로서 위기의 상황을 분석하고 예외적인 상태를 결정하는 최고의 지도자였다.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 히틀러는 그 어떤 법과 규범의 적용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였다.

그러나 본회퍼는 슈미트가 주장하는 “예외상태”를 다른 관점에서 파악한다. 슈미트의 견해에 대해 비판하는 본회퍼의 문장은 그의 책,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본회퍼는 내용적으로 슈미트의 정치신학에 대한

50) 윤민재,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과 세속화, 그리고 그 비판: 정치신학비판을 통한 민주주의 위기 분석,” 305.

51) 위의 글.

52) 위의 글, 302.

53) 김항, “적의소멸과 정치신학: 칼 슈미트의 카타곤과 메시아,” 189.

54) 슈미트에 의하면 그 당시의 마르크시즘과 보편주의, 의회민주주의는 메시아의 도래를 막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었다. 그는 히틀러를 “구원을 참칭하는 적그리스도를 억제하는 역사 세계의 수호자”로 이해했다. 위의 글, 187.

대립각을 세운다. 본회퍼는 그의 책, 『윤리학』에서 “예외상태”에 대해서 언급한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본회퍼는 “한계상황”이란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적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한다.⁵⁵⁾ 본회퍼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해 책임적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다. 그 경우들 중의 하나가 한계 상황이다. 그리스도인은 “한계상황”에 직면할 때, 죄를 짓게 되더라도 이웃을 위해 책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자기 안에 있지 않으며, 그 판단의 여부는 하나님의 “손”과 “은혜”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⁵⁶⁾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 관점은 히틀러를 암살하는 공모에 가담한 본회퍼의 고민을 잘 반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계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폭력의 행위는 “마지막 수단(ultima ratio)”으로서 제한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⁵⁷⁾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예외상태와 한계상황 속에서 폭력의 사용을 제한적인 범주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폭력은 목적달성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사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2월 3일에 발생했던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슈미트의 표현대로라면 주권자가 예외상태에서 유감없이 감행했던 독재정치에 기반을 둔 결정이었다. 윤석열의 정치가 무속종교의 영향 아래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세속적인 것 안에 신성한 것을 주입했던 슈미트의 정치신학이 지

55) Dietrich Bonhoeffer, *Ethik*, 268-273.

56) 위의 책, 268-269.

57) 위의 책, 273.

금도 부분적인 유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미트의 견해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슈미트에 의하면 주권자는 예외상태의 결정을 독점하며 그의 결정은 성서의 축자영감설에 대한 근본주의 신학의 맹신처럼 정확무오하다. 하지만 윤석열의 계엄령선포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정치적·경제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의 결단은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실패했고, 그의 자의적인 결정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는 재판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해 강조했다, 극우에 가까운 정치집단과 극우적인 개신교도들 앞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진정한 투사나 또는 정치적 순교자로 추앙되었다. 본회퍼가 옳게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한 책임적인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정당성의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행동”이었다.⁵⁸⁾ 즉, 히틀러는 주권자 개념 및 예외상태의 개념의 기초 위에서 그 어떤 정치적·사회적·군사적 결정에서도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외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실정법과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히틀러의 파시즘이 본회퍼의 이와 같은 비판 앞에서 숨을 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VI. 결론

독일의 정치신학자, 쾰레(Dorothee Sölle)는 기독교 파시즘(Christofaschismus)의 유해성을 언급했다. 기독교 파시즘은 일반적인 파시즘의 정치성향적 특징과 기독교 근본주의 및 자본주의의 신성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적 가치를 무시하고 극우적인 이데

58) 위의 책, 268.

올로기를 신봉하고 자신들에게 절대적인 선과 진리의 수호자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반대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배타적인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파시즘 사이의 강력한 친화성을 발견할 수 있다.⁵⁹⁾ 광장에서 확인되는 극우 개신교의 정치집회는 쥘레와 박성철의 견해가 매우 시의적절할 것임을 잘 보여준다. 전광훈으로 대표되고 있는 광장의 연사들은 “하나 같이 계엄을 계몽이라고 칭송하고, 내란수괴를 지키자며 헌법재판소 파괴를 외쳤고, ‘공산당’, ‘종북좌파’, ‘민주당 간첩’, ‘빨갱이 노조’를 죽이자, 처단하자 절규한다.”⁶⁰⁾ 한국의 극우 정치집단에서 볼 수 있는 행동과 언어는 한국개신교의 극우단체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탄핵찬성자들은 북한 지령을 받고 한다. 중국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이 직접-간접적으로 활동한다. 여당에 반대하는 여당 안에는 이러한 운동권과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⁶¹⁾

이들이 보여준 행동의 심각성은 예외상태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보여준 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화와 연결된다. 서울 서부지청 법원의 내부를 폭력적으로 침입했던 사람들 중에 극우 개신교도들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전광훈은 본회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전광훈은 미친 운전사는 버스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던 본회퍼를 광화문 광장으로 불러냈다. 본회퍼의 “미친 운전사 이야기”는 히틀러의 파시즘과 유대인들에 대한 폭력을 그 배경으로 갖고 있다.⁶²⁾ 극우 개신교인들이

59) Dorothee Sölle, “Christofaschismus,” in *Das Fenster der Verwunderkeit* (StuttgartK: Kreuz Verlag, 1987), 158. 박성철,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145.

60) 박종균, “극우 파시즘의 유령이 한국 개신교회를 배회하고 있다,” 『2025년 한국기독교 윤리학회 자료집』, 6-7.

61) 신혜진, “폭력과 권력: 계엄 이후 한국개신교 보수주의의 극우화 현상을 중심으로,” 63.

62) 위의 글.

비판하는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치집단의 행위를 파시즘에 근거한 히틀러의 독재정치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큰 의문이 생긴다. 오히려 극우 개신교인들은 중국과 이슬람인들에 대한 배타주의적 행동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 안에서 인종주의에 입각해서 유대인들을 배제했던 나치의 극단성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엇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그리고 본회퍼는 히틀러에 대한 암살공모에 참여했지만 그 행동은 그 정당성을 자기 안에서 찾는 “이데올로기적 행동이 아니라, 행위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찾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한 책임적인 행동”이었다.⁶³⁾ 놀랍게도 극우 개신교인들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의 상황을 미국의 트럼프가 와서 해결할 것이고 윤석열과 자기들을 구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은 마치 히틀러가 그 당시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천년왕국의 영광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독일 극우 개신교의 믿음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독교는 본회퍼를 바로 이해하고 광장으로 불러내야 한다. 본회퍼는 깊은 학문성을 인정받았던 신학자였고 교회를 사랑했던 목사였다. 또한 본회퍼는 인간적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유대인들의 고난에 참여했던 동시대인으로 살았다. 그는 1943년 4월 5일에 나치의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었고 약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낸 후, 1945년 4월 9일에 독일의 플로센뷔르크(Flossenbürg)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삶을 마감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9세였다. 그로부터 3주일 후에 히틀러가 자살했고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은 연합군에게 항복했다. 죽음이 마지막

63) Dietrich Bonhoeffer, *Ethik*, 268. 독일의 본회퍼 연구가인 티츠(C. Tietz)의 견해에 의하면 본회퍼의 책임윤리는 “각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구체적으로 마주친 타자의 필요에 대한 용기있는 응답을 복돋우며, 책임감 있는 행동 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희망에 의해 지탱”된다. 크리스티아네 티츠, 김성호 옮김, 『디트리히 본회퍼: 저항의 신학자』 (서울: 동연, 2022), 201-202.

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남겼던 본회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교회를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옥중서신은 본회퍼가 구상한 새로운 교회론적인 비전을 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타자를 위한 교회”이다. 이 비전 안에서 극우 한국개신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를 바란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이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 교회는 인간의 사회적 삶의 세상적 과제를 지배하면서도 아니라 도움을 주고 섬김으로써 관여해야 한다. …… 교회는 모든 직업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이며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⁶⁴⁾

64)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Hg. C. Gremmels, E. Bethge, R. Bethge in Zusammenarbeit mit I. Tödt, DBW 8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98), 560. 고딕체는 필자의 강조)

참고문헌

• 단행본

김수용, 고규진, 최문규, 조경식. 『유럽의 파시즘: 이데올로기와 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박성철.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베트게. 『디트리히 본회퍼: 신학자-그리스도인-시대인』. 서울: 복있는사람, 2014.

빌헬름 라이히/황선길 역. 『파시즘의 대중심리』. 서울: 그린비, 2009.

자비네 드람/김홍진 역. 『본회퍼를 만나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장수한.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6.

추태화. 『권력과 신앙: 히틀러 정권과 기독교』. 서울: 씨코북스, 2012.

크리스티아네 티츠/김성호 옮김. 『디트리히 본회퍼: 저항의 신학자』. 서울: 동연, 2022.

Gestrich, Christof. *Christentum und Stellvertretung. Religions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zum Heilsverständnis und zur Grundlegung der Theologie.* Tübingen: Mohr Siebeck, 2001.

Bonhoeffer, Dietrich. "Christologievorlesung." *Berlin 1932-1933*, hg. v. C. Nicolaisen/E.A. Scharffenorth, DBW 12. Gütersloh: 1977.

_____.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hg. v. J. Soosten, DBW 1.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6.

_____. *Berlin 1932 - 1933.* hg. v. C. Nicolaisen/ E. A. Scharffenorth, DBW 12. Gütersloher: Chr. Kaiser Verlag, 1997.

_____. *Ethik.* hg. v. E. Bethge/ I. Tödt- E. Feil- C. Green, DBW 6. Gütersloh, 1998.

_____. *Widerstand und Ergebung.* Hg. C. Gremmels, E. Bethge, R. Bethge in Zusammenarbeit mit I. Tödt, DBW 8. München: Chr. Kaiser Verlag,

Sölle, Dorothee. "Christofaschismus." in *Das Fenster der Verwunderkeit.* StuttgartK: Kreuz Verlag, 1987.

Hirsch, Emanuel. *Deutsches Vokstum und Evangelischer Glaube*: Hamburg: Hanseatische verlagsanstalt, 1934.

,Schöps, H., eds. *Der Nationalismus als politische Religion*. Mainw: Philo Verlag, 1997.

Schwarz, R., *Martin Luther. Lehrer der Christen Religion*. Tübingen: Mohr Siebeck, 2015.

•학술지

강안일. “디트리히 본회퍼의 ‘직접성’과 ‘간접성’에 대한 이해: 나를 따르라와 성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92(2024) 805-831.

김기홍.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기독교회의 태도.” 『신앙과 학문』 25/2(2020) 153-182.

김향. “적의 소멸과 정치신학: 칼 슈미트의 카타곤과 메시아.” 『인문논총』 72/4 (2015) 183-211.

나인호, 박진우. “독재와 정치종교: 독일 나치즘과 일본 파시즘의 상징의 정치.” 『대구사학』. 255-278.

박성철. “한국 교회 내 기독교파시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집, 2020.4. 303-326.

박종균. “극우 파시즘의 유령이 한국 개신교회를 배회하고 있다.” 『2025년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자료집』. 2025.4. 6-21.

박한규. “열광의 정치: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 『대한정치학보』 15/3(2008).

신혜진. “폭력과 권력: 계엄 이후 한국개신교 보수주의의 극우화 현상을 중심으로.” 『2025년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자료집』. 2025.4. 59-75.

윤민재.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과 세속화, 그리고 그 비판: 정치신학비판을 통한 민주주의 위기 분석.” 『사회과학연구』 57(2018) 295-320.

이병철. “독일 제3제국과 기독교의 저항.” 『서양사연구』 37(2007) 131-171.

논문투고일: 2025년 07월 14일

심사개시일: 2025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08월 04일

• 국 문 초 록 •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 극우 개신교인들의 서부지검 난입은 극단적인 행동이었다. 파시즘은 비상계엄 선포와 극우 개신교가 보여준 행동의 기본 동인으로 보인다. 히틀러의 파시즘은 독일의 1차 세계대전에서의 참패와 세계 경제공황으로 인해 생겨났다. 독일 개신교는 나치 이데올로기에 신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사적 범죄에 참여했다. 독일 개신교는 히틀러를 독일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치적 메시아로 추종했다. 그러나 본회퍼는 히틀러의 지도자 개념, 나치의 집단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을 비판했다. 한국의 극우 기독교는 다양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며, 극우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고, 특정 타종교와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차별한다. 한국의 극우 기독교는 본회퍼를 바로 이해해야 하며, 본회퍼가 강조한 “타자를 위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써 환대와 구원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주제어: 히틀러, 파시즘, 본회퍼, 저항, 책임, 교회
